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4월 15일

### CUOMO 주지사, 뉴욕주를 전미 국민투표 협정에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을 전미 국민투표 협정에 합류시키는 주 목록에 뉴욕을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주간(interstate) 협정에 따라 협정 회원 주들은 다수의 전미 국민투표 대상 후보자들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뉴욕은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장점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인단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조정함으로써 조기 경쟁과 경합이 치열한 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대신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들에게 모든 주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혁신적인 리더라는 뉴욕의 전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이 법안에 서명이 이뤄진 것에 특히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개혁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한 주 목록에 데 뉴욕을 추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미헌법에 따른 뉴욕주의 권리를 이용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미헌법 제2조 1항) 대선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서명으로 뉴욕은 50개 전 주 외에 워싱턴 DC에서 대선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된 승자에게 29개의 표를 주게 되며, 본 협정이 다수의 대선 선거인단 수 538명을 유지하도록 다른 주들이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한 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본 협정이 이제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61%)의 165명을 포함하게 되므로 뉴욕은 이러한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방 헌법 수정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 헌법 제2조 1항은 각 주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전권을 주고 있습니다: “각 주는 헌법이 지시하는 대로 선거인단 수를 정한다...” 현재 다른 47개 주처럼 뉴욕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789년에 3개 주만 사용하던 것입니다.

전미 국민투표 헌법은 선거 공정성의 기본 원칙을 고수합니다. 현행 승자독식 방식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뉴욕처럼 확실한 공화당 및 민주당 지지 주들을 무시하고 모든 관심과 자원을 민주·공화 양당 초접전 경합 주의 특정 그룹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뉴욕주의

Korean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많은 문제들에 집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 방식은 미국을 빨강색, 파랑색 그리고 초 경합 주로 인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은 1,300만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미국 네 번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희생양입니다. 뉴욕은 대통령 유세 지출 비용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대선에서는 모든 주의 모든 표가 다 중요함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제도적 변화에 앞장서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전미 국민투표 협정은 시행과 함께 보다 더 훌륭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미 국민투표는 유권자에게 표를 통한 권한 부여 행위입니다. 투표가 의미 있는 활동임을 생각하게 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치 활동 과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자아낼 것입니다. 협정 참여는 우리에게 대선 후보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주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선거권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표가 자신들의 표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양당의 지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면서 대선에 보다 현대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반영한 내용을 내놓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Jeffrey Dinowitz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선거의 승자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 다시 말해 미 대통령직: 이외에는 말입니다. 뉴욕은 대선 승자가 1위로 들어온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주로 하나가 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미 국민투표가 충분한 숫자의 주에서 통과되면, 이는 국민투표 우승 후보가 항상 대선의 승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모든 유권자의 표 하나 하나가 똑같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초접전 주에서만이 아닌 미 전역에서 유세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의 관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더 이상 외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에서 더 이상 방관자로만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우리 공화국 역사상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상하 양원의 양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165개의 대선 선거인단 투표권을 가진 11개 관할지역-California,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llinois, Maryland, Massachusetts, New York, New Jersey,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